

청소년 성교육 누가, 언제, 어떻게?

글_ 배미애

누가 가장 좋은 성교육자인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교황이 되시기 전, 젊은 보이티와 신부 시절에 집필한 저서 「사랑과 책임」의 서문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적혀있다.

“사람들은 흔히 결혼생활을 해본 사람만이 결혼이라는 주제에 대해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결혼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성직자와 독신자가 이런 주제에 대해 말하고 글을 쓰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이들이 사목활동에서 수많은 간접 경험을 얻기 때문이다.”

수도자인 필자 역시, 수도생활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성교육 현장에서 성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간접 경험을 했다. 그러

기에 성교육을 누가, 언제,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지를 말할 수 있다.

성교육 현장에서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들을 만날 때,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묻으면 대부분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유는 현 시대가 안심하고 자녀를 내맡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자녀가 성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가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치된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누가, 언제, 어떻게 성교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기를 망설인다. 성교육은 필요하지만 자신이 없다는 표정이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 성교육을 받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배미애 마리진 착한목자수녀회 수녀, 한국민스타 대표.

는 모르겠다고 말한다.

성교육은 필요하다. 그렇다면 '누가 가장 좋은 성교육자인가? 성교육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알려주어야 할 가르침은 무엇인가? 성교육은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이러한 질문에 앞서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

'성(性)이란 무엇인가? 성은 어디로부터 왔을까? 남성과 여성으로서, 성을 지닌 인간의 몸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준비하지 않는 성교육은 지식만을 주입하는 교육에 그치고 말뿐이며 삶의 현장에서 실천을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오늘날 성의 문제는 인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통해 그 핵심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궁극적인 해결점도 찾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성에 대한 매뉴얼?

성에 대한 느낌과 생각은 모두 같지 않다. 성에 대한 체험이 모두 같지 않기 때문이다. 생식력 자각 프로그램인 틴스타 교육에서 참가자들에게 "생식력이 무엇인지 아는지요?" 하고 물으면 다양한 대답이 나온다.

생식력이란 무엇인가? 부모가 될 수 있는 능력, 곧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며

엄마와 아빠가 될 수 있는 힘이다. 우리는 이러한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을 언제 처음 발견했고 무엇으로 알게 되었을까? 또 누가 어떻게 가르쳐주었는지 기억해 보자. 그때 그 가르침 안에서 생식력이 의미하는 바를 어떻게 전해 받았던가? 혹시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했는가? 또는 깊고 풍요로운 의미를 전해 받았는가?

하느님은 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을까? 왜 성적 존재로 만드셨을까? 이러한 질문은 현실 안에서 부모에게도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이다. 자녀를 왜 낳았는지 기억해 보자. 무슨 이유로 자녀를 갖게 되었나? 자녀는 부모에게 선물인가? 어떻게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물어 보자. 내 몸에 지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생식력을 지금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부모가 자녀를 통해 이뤄야 할 과업은 무엇인가?

대학생들과 열린 토론을 했을 때, 대학생 한 명이, 자신은 한 번도 성에 대한 제대로 된 매뉴얼(지침서)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성을 어떻게 사용해야 잘 사용하는 것인지 물었던 적이 있다. 우리는 과연 자녀에게 성에 대한 어떤 매뉴얼을 줄 수 있을까? 자녀에게도 부모가 갖고 있는 생식력, 곧 부모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겠다.

가장 훌륭한 성교육자는 부모

자녀에게 일어나는 육체적 체험은 다분히 육체적인 것에 머물지 않는다. 성적(性的)이라는 것은 관계적이며 인격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의 영과 육의 인격적 몸은 현재의 자녀뿐 아니라 장차 자녀의 배우자는 물론, 그와 관계 맺는 모든 이들과 떼어 수 없는 관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있는 몸의 혼인적인 의미다. 이것은 또한 나의 자녀의 몸에 담겨있는 하

느님 닮음이다. 자녀의 하느님 닮음을 자녀가 어떻게 발견하고 살아야 하는지가 결국 성교육이 답아야 할 내용이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성교육자는 부모이며, 부모가 가장 훌륭한 성교육자가 되어야 한다. 부모는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춰 가장 적절한 시간에 몸의 대화 안에서 무엇이 사랑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적으로 받게 되는 성교육은 보조성의 원리로 접근해야 한다. 틴스타 프로그램 역시, 부모와 자녀 간의 교량 역할을 한다. 곧 부모와 자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그들 시기에 꼭 필요한 성에 대한 가치관



틴스타(TeenSTAR)는 '성인의 책임감이라는 맥락에서 본 성교육(Sexuality Teaching in the context of Adult Responsibility)'이라는 의미로, 십대들을 위한 가치 지향적인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의 협조,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생식력 인상을 경험적으로 배우도록 한다.

을 정립하도록 돕는다.

우리는 젊은 시절을 보낸 성인(成人)으로서 자녀에게 또는 이 시대의 젊은이에게 생명과 사랑에 대해 어떤 유산을 남길 수 있을까? 젊은이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해야 나의 인생이 가치를 지니고 의미를 갖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찾도록 도와야겠다.

현대의 젊은이는 수많은 성적 세력 안에서 살아간다. 젊은이 스스로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답을 찾도록 도와야 한다. 성교육은 각 인격적 존재가 삶의 참다운 의미를 묻고 찾아가면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

왜 십대 자녀와 성에 대해 대화하는 것이 어려울까?

글_ 배미애

부모는 1차 성교육자

십대 청소년을 자녀로 둔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는 가정에서 성교육이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방과 후 학교에서 돌아온 딸은 친구와 나눈 이야기를 어머니와 함께 나누고 싶었다. 그때 어머니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있었지만 바로 텔레비전을 끄고 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나중에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당시 자신의 말을 성심성의껏 들어준 어머니가 깊이 기억에 깊이 남는다고 말했다.

틴스타 교육 현장에서 만난 대부분의 부모들은 십대 자녀와 성에 대해 대화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한다.

왜 십대 자녀와 성에 대해 대화하는 것

이 어려울까? 성이란 무엇이기에 부모는 자녀와 편안하게 대화하지 못하는 것일까? 혹시 성을 육체적인 성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는 관점 때문일까? 아니면, 성에 대한 특별한 주제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사실상, 부모는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녀에게 수없이 많은 성교육을 이미 하였고, 또 하고 있다.

아이는 출생한 바로 그 순간부터, 아니 수정된 순간부터 부모에게서 성교육을 받는다. 부모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다. 아이에게 말하고, 안아주고, 눈을 마주치는 등 상호 교감하는 태도가 성교육의 첫걸음이다. 왜냐하면 성이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서로 어떻게 관계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가 결국 성교육의 내용이다. 때문에 부모는 자녀 성교육의 1차적인 의무와 권리를 지닌 성교육자인 것이다.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관계 맺음과 성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고 발달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자녀의 성장 발달 단계 안에서 꼭 필요한 기본 욕구가 충분히 채워지지 못하면 자녀는 크고 작은 상처를 품고 성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상처 받은 자녀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며 살아간다.

또한 자녀의 발달 단계에서 미해결된 발달상의 문제와 충족되지 못한 욕구는 좋지 못한 부모교육이나 대인관계로 종종 나타난다.

특히 청소년 자녀는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시기를 보낸다. 틴스타 부모모임에서 만나게 되는 부모에게서 “아이가 갑자기 변하고 이상해져서 말을 못 하겠다.”는 표현을 듣게 된다.

과연 ‘갑자기’라는 표현은 적당한 표현일까? 예전에는 그렇지 않던 자녀가 갑자기 변한 것일까? 자녀가 갑자기 변한 이면에 있는 정서적, 육체적, 관계적 측면을 살

펴보자. 자녀에 대한 적절한 관심은 성교육의 시작점이다. 대화의 물꼬를 트는 출발점은 자녀가 던지는 어떠한 대화에서도 가능하다.

관계 맺음과 성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인간은 모두 관계 안에서 성장하기 때문이다. 부모는 자녀와 관계를 잘 맺고자 자녀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자녀가 갑자기 왜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인지 고민한다.

자녀 역시 자신의 신체적 정서적 변화에도 자신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부모의 태도를 통해 좀 더 쉽게 자신의 마음을 부모와 나누게 된다. 신뢰 있는 대화 안에서라면 성에 대한 대화 역시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주제가 된다.

결국 성에 대한 대화는 한 사람의 남자와 여자로서, 아니 한 인격적인 존재로서 어떻게 관계 맺음 하는가에 대한 나눔인 것이다.

기다려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부모

청소년기를 연구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십대 청소년 대부분은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부모와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사춘기를 벗어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신체적 정서적으로 급격한 변화

를 겪는 이 시기를 일종의 과도기로 본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서적 사회적 지원이다. 또래 집단의 친밀감을 추구하며 독립과 의존의 욕구가 일관성 없이 드러나며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려는 청소년 자녀가 이 시기를 건강하게 보내도록 부모는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누구이며, 어떤 매력이 있는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지, 무슨 공부와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자녀는 자기주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자신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부모는 자신이 가치 있게 생각한 것에 대해 자녀로부터 도전받고 공격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가 겪고 있는 이 과도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모델이다. 또한 그들에게는 여전히 그들을 보호할 적절한 울타리가 필요하다.

허용과 제한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울타리가 여전히 필요하다. 그 울타리는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주고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기꺼이 대화하려는 울타리다. 정신적으로는 아직도 자신보다 크게 느껴지는 부모의 이미지를 현실에 맞게 축소하려고 끊임없이 부모에게 도전하는



자녀에 대한 적절한 관심은 성교육의 시작점이다.

자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울타리다. 십대들이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주면 부모는 울타리를 더욱 넓게 허용해야 한다.

격변하는 청소년 시기를 자녀와 함께 보낸 부모는 함께 보낸 모든 갈등과 고통의 시간이 성장을 향한 사랑의 시간이었음을 알게 된다.

한편 십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누구나 크고 작은 갈등을 일으키며 이 시기를 어렵게 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좀 더 여유가 생길 것이다. 자녀가 신뢰 안에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시기의 부모의 과업이다. 이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면 부모 역시 성장한다는 것을 알아야겠다. 때문에 자녀는 격변의 시기에서조차 부모에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



글_배미애

십대 임신은 어떻게 볼 것인가

“수능보다 더 두근두근”이란 광고 문구가 있다. 세상에 수능보다 더 가슴이 두근두근한 일이 무엇일까?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부모가 인생에서 수능보다 더 가슴을 졸이는 순간은 언제일까? 바로 인생의 전환점이며 도약을 맞이하는 순간일 것이다.

그런데 이 광고문은 다름 아닌, 임신 반응 테스트에 대한 광고 문구다. 십대 자녀가 미혼 부모가 된다는 사실은 십대 당사자나 부모 모두에게 수능의 결과보다 더 충격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광고문을 썼을 것이다.

준비가 안 된 십대의 임신은 하나의 충

격이며 위기다.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기에 틴스타 현장에서 만나는 부모들에게 십대 자녀가 임신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면 많은 부모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십대 자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어떤 상황이 따라올지 잘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십대 임신의 해결책으로 임신중절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십대의 성문제를 문제의식을 갖고 바라보는 부모 중에는 십대 성교육에서 반드시 피임법을 다뤄야 하고 책임 있는 성교육을 함으로써 십대 임신을 예방해야 한

배미애 마리진 착한목자수녀회 수녀, 한국틴스타(www.teenstar.or.kr) 대표. 부모 됨의 의미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정서적, 사회적, 이성적, 영적 국면을 통합시키며 성숙시키는 데 있음을 성교육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다고 말하는 분도 있다. 때로는 피임만 잘 하면 혼전 성관계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부모도 있다. 마치 피임을 이용한 성관계가 책임 있는 성관계라도 되는 듯이 말이다. 그러나 과연 임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자.

임신은 새로운 생명을 품고 부모가 된다는 뜻이다. 인공 피임은 부모가 되는 임신 과정을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끈, 약물을 사용하여 난자의 성숙을 막아 배란을 억제하기도 하고, 또는 배란이 되었다 하더라도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기계적인 차단을 하기도 한다. 때때로 영구적인 방법으로 난자와 정자가 서로 만나지 못하도록 수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피임 방법이 얻으려는 목적은 오직 하나다. 임신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인공 피임을 한다는 것은

요즈음 우리 사회의 인공 피임 시장에는 유혹적 문구의 광고들이 만연해 있다. “안전한 성행위는 콘돔으로”, “한 알 복용으로 해결하세요!” 그러나 누구나 알고 있듯이 어떠한 피임 방법도 안전하지 않으며, 100% 임신을 피하는 방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 피임이 곧 안전한 성행위를 이끌어줄 것이라는 생각은 심각한 오류

다. 피임 광고문이 전하는 메시지는 오히려 성에 대한 가치관과 성관계의 목적을 혼동시킬 뿐이다.

인공 피임의 옹호자들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심대의 생물학적 능력은 알고 있지만, 그 능력을 손상시키는 것을 묵인하거나 동조한다. 그것은 진정으로 부모가 되는 능력을 차단할 뿐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지는 행위도 아니다. 인공 피임을 한다는 것은 사랑은 하겠으나 생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고에서 나온 이기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생식력에서 생명을 분리시키며 맺는 쾌락을 위한 성관계는 결코 인간의 삶을 성숙시키지 못하며 행복하게 할 수 없다. 성관계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고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때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인공 피임은 합일적이며 생산적인 성행위의 목적을 이분화시키고 출산 능력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게 한다. 생명은 그러한 가치 안에서 방임되거나 무가치한 부산물이 될 뿐이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피임은 낙태와 밀접하게 연관된 같은 나무의 열매다. 많은 경우 피임 행위 안에는 출산을 자기성취의 방해물로 여기는 자기중심적인 자유의 개념이 내포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관계의 결과 생겨날 수 있는 생명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하는 적이 되며, 낙태는 피임이 실패한 경우에 유일하게 남은 선택 가능한 결정적 해답이 되는 것이다” (『생명의 복음』, 13항).

십대가 지닌 부모 됨의 능력

십대 청소년기는 성 정체감을 포함한 인격을 형성해야 하는 시기다. 인격의 성숙 안에는 부모 됨을 준비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들이 당장 부모가 되기를 원하지 않을지라도 사춘기의 십대들은 생리적으로 부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몸에 지니고 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때문에 십대에게 자신의 몸에 담긴 생식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장차 그들이 부모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하도록 도와야 한다.

만약 우리가 가임력의 긍정적인 가치를 성이 지닌 진정한 책임이라는 맥락에서, 특별히 부모 됨의 맥락에서 십대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책임감 있게 성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이 아니겠는가!

스스로 생식력에 대한 이해와 정상적인 양상을 인지한 청소년은 자신의 몸 안에 부모가 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나아가 타인의 부모 됨 역시 존중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십대 자녀들이 맺는 성행위의 결과가 수능보다도 더 두렵고 무서운 상황에 대하여 어떤 준비를 시키고 있는가? 십대가 지닌 부모가 될 수 있는 능력은 하느님의 창조와 구원의 신비에 동참할 수 있는 잠재된 선물이다. 그 잠재된 선물은 남자와 여자의 각기 다른 생리적인 신호체계로 지금 이 순간에도 부모 됨의 가능성을 알려주고 있다.

그들의 몸에 담긴 부모 됨을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성이 지닌 정서적, 사회적, 이성적, 영적 국면과 조화롭게 통합되도록 도와야겠다. 그렇게 되었을 때, 청소년은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며 진정으로 성숙한 부모 됨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